



숲 소재로 한

신명나는 창작뮤지컬

새로운 소재와 형식의 뮤지컬을 끊임없이 발굴해 선보이고 있는 서울예술단은 이번 공연에서 타악 단원들이 주축이 된 특별한 뮤지컬을 선보인다.

흥미로운 서사와 함께 국악의 멋과 흥이 가득한 축제이기도 한 창작뮤지컬 <굿 세워라 금순아>는 민속신앙인 '굿'을 소재로 전통 마당놀이 형식에 사물놀리와 가무가 결합한 독창적인 뮤지컬로 관객들과 만나고자 한다.

신나는 음악과 리듬, 온 몸을 들썩이게 하는 춤, 우리에게 익숙한 신명나는 장단으로 어우러지는 소동극은 새로운 장르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숲을 베어내면 마을에 흉년이 들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생기며,
결국에는 마을이 소멸된다.
반대로 숲을 정성으로 지키면
반드시 숲이 인간을 돌보고,
숲을 지키는 이의 자손은 대대로 번창한다.



시놉시스

글월 '문'에, 봉우리 '봉'자를 쓰는 문봉리 마을에는 "숲을 베어내면 마을에 흉년이 들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생기며, 결국에는 마을이 소멸된다. 반대로 숲을 정성으로 지키면 반드시 숲이 인간을 돌보고, 숲을 지키는 이의 자손은 대대로 번창한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봉리 마을의 자랑인 문봉산의 숲이 도로 건설 계획으로 훼손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문봉산 너머에 지어지는 대형 리조트 진입로가 마을 숲을 가로지르게 된 것이다. 이미 허가가 난 계획을 엮기 위해선 전통문화 보존지역 지정을 받는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30년 만에 마을굿을 복원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외지인의 도움 없이 온전히 마을 사람들로만 굿을 구성해야 전통문화 보존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마을을 지키기 위한 당제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숲을 베어내면 마을에 흉년이 들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생기며,
결국에는 마을이 소멸된다.

반대로 숲을 정성으로 지키면
반드시 숲이 인간을 돌보고,
숲을 지키는 이의 자손은 대대로 번창한다.



서울예술단

서울예술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공립예술단체로서 1986년 '88서울예술단'으로 출범한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왔다. 매년 2~3편의 창작공연 제작을 통해 대한민국 창작 공연의 산실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정기공연을 통해 신작 개발 및 레퍼토리 공연을 진행한다.

또한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공연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에도 힘쓰고 있다. 더불어 교육사업 및 각종 창작 작업을 통해 공연예술 인력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